

이야기

성서

성서의 특징은 그 원천이 글로 된 것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 쉬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이어진 민중의 이야기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데 있다. 이 단계를 우리는 보통 구전단계라고 한다. 민중들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로 나누면서 세대를 넘고 지역을 넘어 전승한 것을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글로 옮겼다. 그럼에도 역시 민중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생동하다가 구약은 다윗 왕조에 들어와서 국가 기반의 바탕으로 재편집되면서 본래 모습이 많이 상했고, 신약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적응하면서 그 본래 모습이 상처를 입었다. 성서신학자란 바로 그런 긴 역사 속에서 이즈러진 이야기의 본래 모습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복음서

우리는 비록 단편적이거나 예수를 우리에게 전승된 네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의 원천도 역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적어도 주후 30년 전후로 문서화되지 않고 예수의 민중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 이야기들을 엮어 가면서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계속 전승했다. 그런데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민중이 전승한 이 얘기들을 문자의 틀 속에 담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마가복음이 최초로 그것을 담은 그릇이다. 그런데 복음서는 일반 문서와 차이가 있다. 일반 문서들은 민중이 전하는 구전의 내용을 이미 형성된 문학형식이라는 그릇에 맞게 틀을 찼다. 수없이 흘러내리는 샘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든지 둥그런 항아리에 담아서 물은 네모나다, 물은 둥글다 등으로 서로 다투었다. 네모난 것과 둥근 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틀이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민중이 전하는 구전, 이야기들을 이미 있는 어떤 모양, 어떤 틀에 비끄러매지 않고 그 이야기들의 성격에 내맡겨 문학적인 새 모습을 이룩했다. 그래서 희랍만 해도 여러 가지 문학적 구분들이 있었는데 희랍말로 된 이 복음서는 어떤 문학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특유한 것이 되었다. ‘복음서’라는 하나의 문학양식이 탄생한 것이다. 그만큼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원형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선천택 이야기

나는 최근에 계획에 없었던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름하여 『선천택』이다. 나나 우리 가족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선천택』은 나의 어머니의 삶의 편모를 발췌해서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목적은 나의 잘난 어머니를 세상에 내놓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오랫동안 민중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유보하다가 이것을 쓴 것이다. 그

내용은 내가 어릴 적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선 솔직히 말해 나에게 어머니의 상이 이미 희미해진지 오래 됐다. 그는 그 세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억울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표현을 못하고 소리없이 살다가 소리없이 사라진 그 많은 어머니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소설도 아니고 가상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장 힘있다는 전제 밑에서 내가 경험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나는 그대로 되살려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글을 다 끝낼 때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인식한 사실은 내 기억력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또하나 신비한 경험은 위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으나 내게 떠오른 그 얘기들이 계속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얘기들을 유발하여 샘물이 흐르듯 내 머리의 기억이 선천택의 물줄기에 합류하는 것이다. 작은 거미가 몸에서 나오는 줄로 어떤 위대한 성형작가라 해도 이루지 못할 고유한 작품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암울하게 보이는 눈이 열려 모든 사물이 다시 보이듯이, 어둠 속을 헤매던 긴 세월 다음 아침에 태양빛을 비추어 날을 밝히듯이, 나의 잊혀졌던 사실들을 오늘의 경험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또 하나의 계산하지도 않았던 현상이 일어났다. 내가 벌써 수십 권의 책을 세상에 펴냈으나 그 반응은 큰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비슷해서 속으로 스며드는지는 몰라도 잔잔한 파문과 더불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선천택을 세상에 내놓은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로 편지로 혹은 글로 선천택을 읽고 거기에서 새 사실을 발견했다는 반응이 여기저기로 퍼져 나갔다. 중요한 것은 그 글이 좋다거나 선천택의 생애에 감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천택을 통해서 나의 엄마를 되찾

존재 없는 그가 애기를 통해서 살아났다. 이야기가 죽은 이를 살려냈다. 이야기가 죽은 이를 살려서 자기의 사는 삶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어머니들, 이미 세상을 뜬 이들과 그리고 지금 살아 있는 어머니들과 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했다.

있습니다' 하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선천택이 과거에 묻혀서 영원히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여기저기서 되살아난 느낌이다. 어떤 사람은 '내 엄마와 여자라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도 했다.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선천택 애기는 세상에 아무 존재도 없이 깔려만 살다가 소리없이 사라진 그들을 되살렸다고. 아니, 그가 산 것이 아니고 선천택이 열도 되고, 스물, 백도 되어 한국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미국에까지 가서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 없는 그가 애기를 통해서 살아났다. 이야기가 죽은 선천택을 살려냈다. 이야기가 죽은 선천택을 살려서 자기의 사는 삶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어머니들, 이미 세상을 뜬 이들과 그리고 지금 살아 있는 어머니들과 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했다.

전태일 이야기

1970년, 한 무명의 어린 노동자가 동대문 평화시장 앞길에서 대낮에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그어댔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겨우 소년기를 벗은 젊은 사람, 그 여린 손으로 큰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정부 요로의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외로움만 당하던 외로운 그! 그는 근대화라는 미명 밑에 노예 같이 혹사당하는 수많은 동료들의 고통을 알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다. 그에게는 끝없는 애기가 많았으나 그의 애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분신자살이다. 그의 분신자살과 함께 전태일이라는 청년은 갑자기 거인처럼 민중 사이에 살아났고 잃었던 애기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이 애기는 퍼지고 퍼져서 전태일이 열도 되고, 백, 천, 만도 되어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70년대는 그의 애기로 이어져서 그 힘이 마침내 독재 정부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힘의 원천이 된 것이다.

엠마오 도상에서 된 이야기

나는 지난번 부활절을 전후해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 관한 애기(누가 24, 13-25)를 읽고 생각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패배당한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낙향하고 있었으리라. 저들은 예수의 민중이었다. 저들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통해서 무슨 큰 변화가 세상에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을텐데 바로 그 기대가 컸던만큼 죽어버리고만 예수를 뒤에 두고 절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 다시 살아오지 않을 예수, 다시 못 만날 예수, 꿈같이 짧은 그와의 삶, 그것은 영원히 과거에 묻히고 말 것인가? 본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그런데 같은 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삼십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리로 가고 있었다. 저들은 서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자신이 저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을 마주했다.” (사역)

그처럼 사모하다가 비참하게 이별한 그 예수가 눈앞에 와 서 있는데 저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도상에서 이야기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약간 분노섞인 어투로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면서 그 사건을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되받았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요. 그는 한 예언자였는데 하느님과 민중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전능한 자와 같았는데 우리의 사제들과 율리시에 앉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소... 그 일이 일어난지 오늘이 벌써 삼일째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흘러갔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까? 그 다음에 저들과 함께 하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 그 무덤이 있던 자리에 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열두 제자 중 몇 명은 그리로 뛰어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런 저들의 이야기를 들던 손님은 “오! 이렇게 아둔한 사람들아!” 하고 측은한 마음이 섞인 책망을 하면서 모세를 비

저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입증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부활한 예수는 그들의 가슴 속에 밖에 아무 데도 없었기에. 그 이야기가 절망과 무기력 속에 죽어가던 저들이 하나하나 생기를 얻어 천하를 누비게 한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되는 그 가운데 예수는 살아 움직인다.

못한 구약의 흐름을 얘기했다고 하며, 그날 저녁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한 상에서 할 때 갑자기 눈이 떠져 예수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식한 순간 예수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의 의미는, 대화는 입으로 교류하는 데 대해서 사랑으로, 물질로 속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도중 저들은 부활한 제수를 만난다. 아니, 이야기가 마치 죽어가는 숯불은 계속 불어서 불길을 다시 일으키듯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계속 얘기할 때 그가 살아나게 됐다. 저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가서 갈라지려고 했던 제자들을 다시 묶어 내가 만난 예수, 네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를 끝없이 이야기했다. 거기에 죽은 줄 알았던 예

수가 현존했다.

이렇게 새롭게 살아난 예수를 가슴에 지닌 예수의 민중들은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세계로, 세계로 전진해 나갔다. 어떤 철학도 아니다. 어떤 심오한 이론도 아니다. 단순히 저들이 함께 살았던 그 예수 이야기다. 이것을 성서는 증언이라고 한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언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는 하나에서 열로 열에서 백으로 백에서 천, 만으로 끝없이 늘어났으며, 그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의 장벽을 깨고, 로마의 침략군인들의 행로로 만든 군사도로와 그 주변에 형성된 동네와 도시를 거쳐 아시아와 로마제국의 본토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예수의 민중이 한 얘기가 점화되어 끝없이 끝없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것이다. 저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입증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부활한 예수는 그들의 가슴 속에 밖에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망과 무기력 속에 죽어가던 저들이 하나하나 생기(生氣)를 얻어 천하를 누비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건은 전형적인 민중사건이다.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끝없는 얘기가 계속되는 그 가운데 예수는 살아 움직인다.

이야기가 끊긴 사회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얘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국가도 그렇다. 할 얘기가 없는 가정이나 국가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공동체의 기둥은 바로 이야기다. 종교인들에게는 각기 그들의 신앙에

따른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잠을 청할 때도 ...

공동체의 적신호는 얘기가 단절되는 것이다. 마주 앉아 보아야 할 말이 없다. 하루종일 못 만났다가 한 집에 모여서 식탁을 같이 해도 주제 있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얘기 없는 집은 지루하다. 그 지루함을 메우기 위해서 요새는 전부 TV를 켜다. 어떤 가정은 TV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통하지 않아 각기 자기 방에 TV를 놓고 그것을 멍청히 들여다 보고 있다. 서로 할 얘기는 끊어진 것이다. 이것은 살았으나 사실상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살이 있다,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적인 접촉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발작과 같은 것이다. 긴 긴 밤에 함께 있었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연대의식도 찾지 못한 채 부모들은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교로 각기 흩어진다. 이런 가정은 죽은 것이다. 그것이 살아나려면 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되어 가는 민족 국가라면 그 민족의 일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얘기들이 큰 강을 향해 물려드는 물줄기 같이 주류를 이루어 그것이 위에서 아래까지 아래서 위에까지 나누어지는 얘기로 형성돼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가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해방이후에 역대의 정부와 민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가? 나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국민의 얘기를 한곳으로 모으려고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한다. 예를 들면 박정희 때에 '잘 살아 보세'라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다. 곤궁에 빠져 있던 민족이었기

에 잘 살아 보세라는 말에 빨리 공감했다. 그러나 ‘잘 살아 보자’는 말이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권력과 재벌이 유착하여 빈부의 격차를 가속화하면서 오히려 이야기를 차단해 버렸다.

5공, 6공을 통해서 우리는 스포츠에 힘을 쏟으면서 民 전체의 애기거리로 삼으려고 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등 마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나 되는 듯이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애기의 주류를 만들려고 했다. 그렇다고 독재에 시달리는 이 民이, 인권을 여지없이 박탈당한 이 民에게는 애기거리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애기할 수 있는 입을 봉해 버린 마당에 어떤 애기가 가능했겠는가?

이 민족의 한

관제적인 것이 아니고 민에 의해서 애기할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 민중 속에서 끝없는 애기를 계속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군사정권 아래서 그것은 한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 이것은 가슴에 맺혀 풀지 못한, 억울하게 응어리진 아픔의 애기다. 이 한을 푸는 길은 역시 애기다. 아니, 우리의 애기를 계속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한인 것이다. 그래서 민중을 애기할 때 무엇보다 앞서서 한을 생각했고 한을 생각할 때 속죄의 그리스도론보다 한을 풀어주는 아니, 가슴에 맺힌 한을 같이 애기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이 한 애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졸부적인 온갖 사회의 부조리가 이 애기를 계속 토막낸다. 한은 제한된 어느 계층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 이 한과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연계된 우리의 애기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우리의 분단의 상황이라고 본다. 50년동안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허리가 잘려 지금도 피

통일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얘기는 중단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얘기를 모아야 한다. 통일 못한 아픔을 얘기해야 하고 통일 못하여 일어난 온갖 비극을 얘기해야 한다. 그 얘기가 마침내 분단의 분계선을 돌파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를 흘리고 있건만 내 스스로가 그 굴레를 벗지 못하고 강대세력을 등에 업은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50년을 넘게 앓고 있다. 강요된 분단은 우리에게 영토의 분단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분단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가 이 세기에 가장 슬픈 비극 가운데 하나로 그대로 존속하고 그것은 마침내 전쟁으로 점화되어 6.25라는 참변을 겪으면서 수백만의 우리 민족의 피를 이 땅 위에 뿌리게 했다. 우리의 유산들은 거의 모두가 미군폭격기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렸다.

아직도 건드리면 아픈 이야기, 대면 피가 날 얘기들이 생생하게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통일로 이어가야 한다. 통일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얘기는 중단될 수 없다. 통일문제는 우리의 긴긴 역사의

한의 내용이 되어버린 현대사와 응결된 현대적인 과제다.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얘기를 모아야 한다. 통일 못한 아픔을 얘기해야 하고 통일 못하여 일어난 온갖 비극을 얘기해야 한다. 그 얘기가 마침내 분단의 분계선을 돌파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인간 역사의 한의 절정을 본다. 예수사건의 중심이 그 수난사에 있고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라는 사형의 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한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는 한을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보는 한의 사건을 우리의 얘기로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깊은 농도를 지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얘기는 끝나는가? 아니, 50년 동안 막혔던 입이 붓물처럼 터져 그 동안의 한이 끝없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오면 경제적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고 주판알을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문제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민중의 한은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힘으로 역사할 것이다.